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다함께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예레미야 애가 3:17-26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기다림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12월 21일(성탄예배) 12월 28일(송년예배)
 장헬렌 최성호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분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무너질 성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조직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약 성경이후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그저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에 불과합니다. 그곳에만 마치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로 착각하는 것은 아직도 구약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참성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저 성전이 무너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며,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더 나아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든 인생도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듯 무너져 내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참성전이 회복되고 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자아에 희생당한 우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기도의 집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이 좋아지는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험악해 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징조가 세상 역사에 나타나지 않았던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역사는 끝을 보여주는 징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징조를 징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끝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의 꿈만 생각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을 원하게 하는 삶의 노선으로 바꿔 놓기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신자가 두려워 할 것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늘 염려와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것은 자신의 꿈이 실현되지 못하고 무너지며 전혀 원하지 않은 삶에 부딪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가꾸어 가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을 향한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존재이고 이루어야 할 소원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참된 현실이 된다면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루심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